

안전사용 농약안전사용 수칙은
특집Ⅱ 반드시 지켜야한다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사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병 학 충북 영동군 농촌지도소

농약없는 농사는 가능한가?

농업을 일신일가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으며 오늘을 살아온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이를 두고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작물 무농약 재배의 바람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농촌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을 구입하여 식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는 새로운 과학의 힘으로 언젠가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류 건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미생물을 소재로 한 생물농약의 개발등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것 같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배 기술로는 농약없는 농사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은

가? 인간이 간사한 것일까? 불과 십수년전 까지만 해도 그저 배고픔만 달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절대적 빈곤의 탈피와 생산성 극대화가 적어도 그 시절엔 절대절명의 과제와 사명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이와 함께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건강과 자연환경보존에 관심을 갖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하여 산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확실히 즐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바른 인식 아쉬운 우리농산물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이러한 여유와 풍요로움은 곧 농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날 농산물이 소비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범이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농약이 마치 수질, 토양, 대기



잔류허용기준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물질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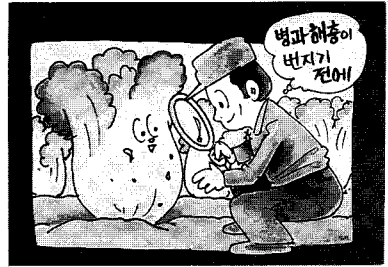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건강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민의 농약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고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민과 소비자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일부 농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농민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이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또 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고 농산물의 농약잔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앞으로 맞게 될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도 한국 농촌의 여러가지 주변여건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전사용’ 인식 아직도 부족

필자가 지난 2월 겨울농민교육에 참석한 영동군의 농민 100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상당수의 농민이 연령이 높은 층(50세 이상 6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농민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이 발생된 다음에 농약을 살포(51%)함으로써 방제 효과가 낮았다.

② 사용한 농약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농민이 32%로 농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용 및 남용의 소지가 있다.

③ 많은 농가가 농약사용시 적정 기준 농도 보다 높게 농약을 살포(59%)함으로써 약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④ 단위 면적당 적정 사용기준량 보다 적게 살포하는 농가(58%)가 많아 방제효과가 낮았다.

⑤ 농약살포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농가(73%)가 많아 중독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안전사용에 대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사용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농약을 사용하는 목적은 재배하는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지킴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증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농약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곧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약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농약은 대상작물, 적용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량만 잘 지켜준다면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구애되지 않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약은 제 때에 뿌려야 한다

첫째, 농약의 사용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다. 농사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한다면 다음에 아무리 좋은 농약을 살포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처럼 농약의 살포시기는 어린이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병해충이 발생하기 이전에 방제 계획에 따라 작물별 농약 살포시기, 최종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방위주의 방제를 실행함으로써 적은 경영비와 적은 노력으로 최대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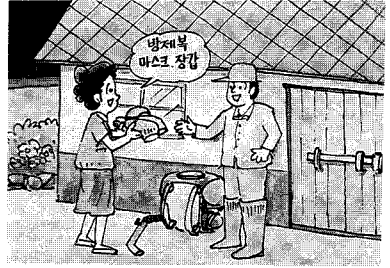
둘째는 농약 선택의 문제이다. 이는 작물에 따라 방제하고자 하는 대상 병해충에 어떤 농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서 아무리 좋은 농약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방제 효과는 물론 약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모든 약이 만병통치가 아닌 것처럼 농약도 적용작물, 방제하고자 하는 대상병해충의 종류와 사용 농약의 독성과 성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한가

지 농약만 계속 살포하면 병·해충에 내성이 생겨 자칫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므로 농약은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2종 이상 농약의 혼용은 노력의 절감 효과외에 살충과 살균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두가지 약제의 상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약제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고 섞어 쓸 경우 오히려 약해를 일으키고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약혼용가부표에 따라 농약을 혼용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 스스로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농촌지도소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농약 오염 및 남용에 대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지나치면 해, 사용량은 정확히

세제는 농약 구입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이다. 보약도 지나치면 해가되고 독약도 필요한 곳에 잘만 사용하면 이롭다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게 된다. 농약도 이와 크게 다를바 없는 것으로 작물에 꼭 필요한 농약이라 할지라도 잘만 사용하면 보약



좀 불편하더라도 방제복 착용을 습관화 해야 중독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 같이 이로운 것이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 오히려 약해등으로 그 피해를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농약은 반드시 농약 포장지에 표기된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횟수등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 하여금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농산물을 애용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방제복 착용은 습관화 해야

네제는 농민의 농약중독에 대한 문제이다. 농약 취급 및 살포시 발생하는 중독은 한 사람이 장시간 농약을 살포하거나 방제복 착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한 여름이다. 날씨가 무더운 탓에 방제복 착용을 꺼리고 있지만 방제복, 마스크, 모자 등 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농약 부착량을 1/4로, 흡입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방제복 착용을 습관화하면 농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약 살포는 가급적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하지 말고 작업중 때때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 낮의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과 저녁 서늘한 때를 택하여 살포하고 작업중에는 담배나 술 등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음주자, 부녀자, 노약자는 농약취급 및 살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과거의 습관과 경험,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이다. 중독사고는 예기치 않은 조그마한 실수로도 바로 우리주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짐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농촌 살리는 기회삼아야

현재 한국의 농촌사회는 사회구조적으로나 단위체계로서의 생존

능력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농 인구의 급속한 증대로 말미암은 농촌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환경여건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과중한 농업노동에서 탈피하고자 방제기구등의 발달과 함께 체초제등 농약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문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보임으로써 국제적으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와 동시에 우리 농산물을 농민 스스로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